【 2017.3.1(수) 강원일보 】

건설·분양시장 꽃샘추위

올해 인허가실적 77% 급감
착공·분양실적도 크게 줄어
미분양 1,876→3,466 폭증

공급과잉 우려에 따라 도내 주택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도내 주택 건설 인허가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77.4%나 감소한 592호에 그쳤다.

주택 착공실적과 분양실적도 각각 전년 대비 37.8%, 61.6% 줄어든 861호, 881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도내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년 대비 58.3%나 증가했었다. 착공실적(46.4%)과 분양실적(51.4%)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주택 건설시장이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 준공이 늘어날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 및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서 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월 주택 준공실적만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 물량 역시 2016년 12월 기준으로 3,466세대로 전년 1,876세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도내 주택건설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이 풀릴 경우 미분양 증가와 함께 집값 하락, 시장 침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도로건설예산 999억원 상반기 집행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건설 예산이 조기 집행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전만경)은 지난 2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국도 건설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청에서 시행 중인 21개 국도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재정 집행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사업별 재정 집행계획 및 국도 6·59호선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접근도로 연내 준공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도로건설사업에 배정된 2,684억원 중 37.2%인 999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접근도로는 10개 공구 75.9㎞ 중 7월까지 1개 공구 11.1㎞, 11월까지 7개 공구 42.1㎞, 12월까지 2개 공구 19.4㎞를 차질 없이 개통하기로 했다.

원주=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